

Davi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32

루스 박람회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세션 32, 루스 박람회 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롯기 서론에서 중단했던 부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롯기 자체에 들어가 네 장을 통해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펴면 첫 번째 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책을 비움과 채우는 개념 사이의 일종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텅 빈 경건한 가족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아스와 롯의 결합,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로 경건한 가족이 채워집니다.

어쨌든,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매우 빠르게 전개됩니다. 그것은 가족의 족장인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나 아들들의 전기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거기에 있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 오르바와 롯과 결혼하고, 두 아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세 명의 여성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딸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유다와 베들레헴 출신이고 그들은 모압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근이 있어서 땅에 위기가 닥칠 때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딸들을 자신에 대한 모든 의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스스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에게 그리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두 며느리 모두 떠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울면서 그녀에게 달라붙는다. 그리고 10절, 9절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가 각각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돌아가서 그곳에서 남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절에서 “아니오, 우리는 당신과 함께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을 갖기엔 너무 늙었으니까 가세요. 나는 당신이 결혼할 수 있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세요. 여호와와 손을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심히 괴로움이 있느니라

13절. 괴로움에 대한 그 생각은 몇 구절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시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지만(13절), 릿은 그녀에게 달라붙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네 동서가 없어졌느니라

그녀와 함께 돌아가는 게 어때? 그리고 나서 Ruth는 이 아름다운 충성심의 진술로 응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진술 중 하나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성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많은 우정과 성약, 결혼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6절에서 “아니요,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너희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당신의 신, 나의 신. 그래서 우리는 모압에서 온 이방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인간관계로 끌어안으면서도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완전히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당신 백성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 바알을 거부할 것입니다.

룻의 경우에는 그모스를 머리로 하는 모압의 종교 체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 나는 거기에 묻힐 것이다.

주님께서 저와 그 이상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외에 다른 것이 나를 당신에게서 떼어놓는다면 . 그래서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나와서 인사하는데 거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나오미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친척 세 명,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딸의 며느리 중 한 명이 버림받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는 그것을 설명하는 각주나 난외주가 있을 것이라는 말장난이 있습니다. 마라라는 단어는 쓰다라는 뜻이고, 나오미라는 단어는 아름답다, 즐겁다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성격과 재산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던 삶의 한 부분을 버리고 싶어 하며, 거의 텅굴고 싶은 듯한 어두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매우 혹독하게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득 찼다.

그는 나를 빈손으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1장의 가정 비유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때는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1장 초반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은 다시 돌아오고 있고 분명히 비가 내리고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다음 두 장의 배경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보아스와 나오미가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와 룯이 만나서 마침내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 1절에서 바로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나오미에게는 자기 남편의 친족이 있으니 그도 유다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이요 보아스라 하는 엘리멜렉 족속의 유력한 사람이더라 그리고 무엇이 가치가 있든 보아스의 이름은 그 안에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좋은 이름입니다. 강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압 사람 룯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밭에 가서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신명기의 오경 율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소가 밭을 갈 때 광미를 떨어뜨리고 소가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가난한 사람들도 따라갈 수 있고 남은 것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룯은 나오미에게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밭에서 은혜를 얻으리라 그를 따라 이삭 이삭을 줍고자 하노라 그녀는 그것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갈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녀는 추수꾼들을 따라 밭으로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방금 일어난 일입니다. 우연의 일치.

아니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와서 이것을 보고 이 젊은 여자를 보고 추수꾼들에게 그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젊은 모압 여자입니다(6절). 그리고 7절에서는 그녀가 와서 더욱 담대한 주장을 합니다. 2절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곡식 이삭 사이로 가서 일종의 배설물, 찌꺼기 등을 줍고 싶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는 내가 이삭을 줍고 곡식단 사이에서 거두어들이는 자를 따라 모으게 하라 하였느니라. 단은 함께 모아진 묶음입니다. 그녀는 더 풍성한 것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 더 대담한 요청입니다. 그것은 여기 7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릿과 대면하거나 릿과 교제하여 그녀에게 이 놀라운 말을 전하며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으면 내 사람들이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청녀들과 함께 가십시오. 내 젊은이들은 당신을 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녀는 옆드려 땅에 옆드려 “내가 어찌하여 당신 눈에 은혜를 입었나이까?”라고 말합니다.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나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방인임을 알고 나오미를 품고 하나님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출신, 유다 출신 누군가가 나그네인 그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준다는 사실에 여전히 놀라고 기분 좋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12절, 즉 11절과 12절에서 보아스는 그에게 대답하며,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충성심 때문에 네 명성을 인하여 그 상을 갚아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은 주님에 의해. 12절 끝.

그리고 보십시오, 12절 끝부분에 있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 새의 날개, 주님의 날개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매우 그림 같은 이미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날개 곧 그의 날개 아래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독수리 날개처럼 솟아오른다고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날개는 피난처와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13절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14절에서 그녀를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여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그는 젊은 남자들에게 그녀를 단 사이에 기대어 두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동안 단 몇 개를 뽑아 떨어뜨려 그에게 음식을 더 주라고 합니다. 그냥, 그녀를 위해 이걸 해보자. 그러므로 보아스의 관대함의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가 집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집어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약간의 찌꺼기와 음식의 여분의 부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들은 모두 동정적이다. 나오미는 자녀가 없는 과부입니다.

룻은 확실히 동정심 많은 여자이고,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확을 마치고 음식을 가져와 시어머니에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보리 한 에바를 얻었는데, 이는 보리 한 부셀의 약 2/3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20절, 여호와께 복을 받을찌니 그의 인자하심이 산 자와 죽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어쨌든 그녀는 그가 그들의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절 끝. 좋은 일이네요.

나오미는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장과 3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 또 다른 종류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며느리에 대한 의무감을 느낍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녀의 며느리가 그녀에게 많은 충성심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 내 딸아,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여야 네가 잘 되리라. 보아스는 거기 여자들과 함께 있던 친척이 아니냐? 보아스와 함께라면 당신에게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시어머니로서 당신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해야 할 몇 가지 일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너희가 쉴 수 있는 곳으로 오는 곳이어야 한다.

이 장은 휴식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하고 끝난다. 3장 1절.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18절. 나오미가 룯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기다리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문제가 해결되고 안식을 얻을 때까지 계속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와 룯 모두에게 안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3절에서 룯에게 씻고 나갈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가 누울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거기 누우라.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할지 말해 줄 것입니다. 그의 발을 드러내는 아이디어는 정확히 무엇인지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담요를 벗기고 담요 아래로 들어가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적인 성적 유혹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거기에는 성적인 것의 배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십대 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남자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그렇게 합니다. 7절에 보면 보아스는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자신이 마셔야 할 것보다 한두 잔 더 많은 와인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우려고 하면 그 여자가 살며시 다가와 그의 발을 감싸줍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9절.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룯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 위에 날개를 펴십시오. 당신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번역판에서는 당신의 옷을 당신의 종 위에 펼쳐 놓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날개를 펴라는 뜻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2장 12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관해 이야기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롯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롯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보호하고 피난처가 되어 달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이 구속자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고엘입니다. 당신은 이 친척 구속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내 딸아, 네가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 나중 친절을 처음 것보다 더 크게 하여 가난한 자나 늙은이를 막론하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 좀 부유한 사람인 보아스는 아마도 중년이나 그 이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젊은 여자예요. 그녀는 청남 중 누구라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이든 남자인 그에게 왔고 그는 그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는 “네가 구하는 것은 다 내가 행하리라 네가 현명한 여자인 줄을 다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11절. Eshet Chayil, 우리는 전에 언급했습니다.

지금은 지웠지만 서문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에 나오는 훌륭한 아내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12절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구속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결혼 계보에 더 가까운 구속자가 또 계십니다. 그러니 먼저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그리고 만약 그가 이 일을 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그의 아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누워서 조사해 볼게. 그리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유리한 결말을 위해 설정되고 준비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다립니다.

그녀는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보아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 보아스는 성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말했던 구속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리로 오라고 합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자.

그래서 그는 또한 그 도시의 장로 열 명을 불러 이 일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형제의 구속 의식에 장로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처남이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여자는 신을 벗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당신의 처남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신명기 25장보다 레위기 25장을 더 많이 반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장로들을 데려옵니다. 장로들은 분명히 도시의 일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속자에게 나오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3절). 그녀는 동족인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솔직하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땅을 살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자 가까운 친척이 '예, 그거 좋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4절 끝부분에서 그것을 구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말합니다. 음, 이것과 관련된 율법이 있습니다. 여기 작은 글씨로 된 추가 문서가 있습니다. 또는 이 추가 문서가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5절,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과부 모압 여인 룯에게서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하느니라. 그것이

5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 서문에서 말했듯이, 그 조항은 오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이에 관습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척은 이 말의 타당성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안돼, 안돼, 안돼, 당신이 틀렸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래가 아닙니다.

6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상속 재산이 손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발전된 관습으로 보이는 것들의 일부입니다. 신명기나 레위기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책의 저자가 우리에게 좀 더 많은 배경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풍속은 이러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거래를 하려고 하면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면서 이것이 모임의 방식이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에 증인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명기에서는 처남이 이를 거부하면 아내, 즉 과부인 아내는 처남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훨씬 더 문명화된 종류의 거래입니다. 하지만 샌들을 교환하는 것은 일종의 것 같습니다. 샌들을 벗으면 겉거나 나쁜 것을 밟기에 더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명예 교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죄송합니다, 8절에서 구속주께서 보아스에게 그것을 네가 가져가라 하시면 그가 신을 벗으셨습니다. 보아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자라 하더라.

절에서는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오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그녀가 다산하고 경건한 영향력을 갖고 자녀를 갖기를 바랍니다.

라헬과 레아는 첩들과 함께 12지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백성들이 롯을 위해 기도하는 축복입니다. 그리하여 네가 에브라다에서 의롭게 행하고 베들레헬에서 명성을 얻게 하여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네게 씨를 주사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보아스는 롯을 아내로 삼았습니다(13절). 그가 그 여자에게 들어가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할 자 없이 버려 두지 아니하셨으니 네가 복이 있도다.

더 나아가 보아스는 그녀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네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녀는 1장에서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자손은 당신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고 당신의 노년기에 양육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가 아들을 일곱이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를 데리고 그의 유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의 이름은 오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조상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족보는 우리가 다른 문맥에서 말했듯이 다시 유다와 다윗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난다. 모든 캐릭터에게 모든 것이 잘 작동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실제로 악당이 없습니다.

그것은 1장에서 남편들이 죽은 슬픈 상황일 뿐입니다. 이 잠재적으로 복잡한 요소인 이 친척 구속자, 이 가까운 친척, 3장. 그러나 그 자신은 프로그램에 따라 보아스가 롯과 결혼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모두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그것에 대해 뒤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책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하고 경건한 왕 다윗 왕의 삶으로 인도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세션 32, 루스 박람회입니다.